



우린 추억이든 좋았다  
그 시절의 웨드라!

글 · 김학민 hakmin8@hanmail.net

1970~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 시절 열정과 희망에 웃고 노래하며 시련과 좌절에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던 젊은이들이 모이던 술집들이 있다. 『희망세상』에서는 전국 각지에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며 당시 젊은이들이 자주 가던 장소들을 발굴, 그 얽힌 역사와 사연을 연재한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린다.(편집자 주)

계모 페드라와 의붓아들 히폴리투스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있다. 이 신화를 모티브로 많은 예술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는데, 그중에는 1962년 멜리나 메르쿠리와 앤서니 퍼킨스가 주연한 그리스 영화 <페드라>(국내 제목은 '죽어도 좋아')도 있다. 해운 갑부의 딸 페드라는 해운업계의 실력자이자 이혼남인 타노스와 정략 결혼한다. 페드라는 의붓아들 알렉시스에 이끌려 사랑을 불태우나, 알렉시스는 계모 페드라와의 이루지 못할 사랑에 몸부림치다가 자동차를 몰고 절벽으로 추락한다. 한편 페드라는 그녀가 아끼던 잠옷을 입고 수면제를 입 안에 털어 넣고는 침대에 눕는다.

### 신화 속 페트라와 먼 '훤드라'

신촌 로터리 현대백화점 옆 골목으로 80여 미터 들어가면 백화점 주차장이 있고, 그 바로 앞에 '훤드라'라는 술집이 있다. 비극적 사랑의 모티브인 페드라를 떠올린다면, 고급 인테리어에 잔잔한 실내악이 흐르고 와인, 맥주, 양주가 흘러넘치는 그럴듯한 카페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이를 어찌할꼬? 이 집은 계란말이, 김치찌개, 두부 두루치기에 고춧가루 시뻘겍게 푼 해장라면 그리고 볼품없이 플라스틱 병째 나오는 시금털털한 장수막걸리가 주 메뉴다.

훤드라, 이 집은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 사랑과 콩나물 한 줌 들어간 해장라면의 부조화와 불화처럼, 전두환 독재정권과 끝끝내 불화하고 탐욕의 시대와 조화를 거부했던 1980년대 연세대생들의 치열한 토론의 사랑방이자 투쟁의 의지를 불태운 현장 그리고 그 지난한

독재와의 싸움 끝의 포근한 안식처였다. 연세대생들은 여기에서 알렉시스처럼 술한 나날을 고뇌하며 갈등하였고, 그리하여 죽음을 찾아 절벽으로 치달아가던 알렉시스처럼 스스로 감옥의 길을, 노동자의 삶을 택하여 걸어갔다.

나는 연세대 출신이지만 훤드라 세대는 아니다. 그래서 훤드라 이야기, 훤드라 전설은 한참을 지난 1990년대이나 이런저런 후배들과의 술자리에서 들어 알게 되었다. 『희망세상』에서 그때 그 시절 민주화운동의 한 선상에 있었던 술집들을 취재, 그 얽힌 이야기들을 남기자고 제의했을 때 우선 훤드라를 떠올렸으나 훤드라 이후 30여년, 상전이 벽해가 된 지금의 신촌을 생각하며 혼자 도리질을 쳤다. 그래서 우선 훤드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한민호(경영학과 79학번) 군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 그 시절 그 아줌마의 훤드라가 바로 그 자리에 아직도 있다는 것이다! 바로 취재 이야기를 하고는 훤드라를 뻔질나게 드나들던 후배 몇몇을 찾아 모월 모일 모시에 훤드라로 나와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 날 시간이 남아 후배들이 오기 전에 기초 취재를 먼저 해 놓으려고 조금 일찍 훤드라에 도착했다.



어정쩡한 시간이라 그런지 술손님 한 사람 없이 아주머니 한 분만 17인치 텔레비전으로 재방 연속극을 보고 있었다. 긴가민가하여 물었더니, 자기는 2001년부터 9년째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라한다. 주인 아주머니는 몸이 불편하여 가게방에서 자고 있다고 한다.

두부김치에 막걸리 몇 잔을 따라 마시며 종업원 양지나(57세)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79학번 황연구, 조호걸, 한민호 군이 들어왔다. 그리고 웨드라 아줌마 조현숙(72세) 씨도 매무새를 가다듬고 술청으로 나왔다. 한민호 군이 반갑게 인사를 했다.

### 연세대생들의 전용 술집

“아줌마, 안녕하세요? 나 누구지 아세요?”

“왜 몰라? 79학번 한민호. 그때 우리 집 자주 왔지. 남자 후배들과는 막걸리 마시고 여학생들과 같이 오면 꼭 맥주 사주던……” 여지없이 한민호의 그 시절 ‘이중생활’을 폭로한다.

웨드라는 1969년부터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카페였는데 이것을 조현숙 씨가 1973년에 인수하여 한 동안 운영하다가 연세대생들의 등쌀에 소주, 막걸리 집으로 바꾸었다. 1970년대 말 연세대 동아리 인간문제연구회가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동아리들도 떼 지어 와 매일 저녁 떠들고 노래 부르고 하니 다른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 손님은 아예 얼씬도 하지 않더라. 그래서 할 수없이 연세대 운동권 전용 술집으로 되었다는 것.

“지금도 그 학생들 기억합니까?”

“그럼요. 김치걸(78학번, 현재 변호사)이가 제일 말 안 들었어요. 십여 명 몰려와 막

걸리 두 세병 놓고 밤새 노래만 부르고, 김치걸이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전축 스피커도 이겨냈어요. 그리고는 나가면서 “술값은 외상!” 이러는 거예요.”

당시 연대생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둘째아들 재용 군도 웨드라에 왔었다고 한다.

“재용이가 친구 두 명과 같이 왔어요. 경호원들은 밖에 서 있고, 조용히 막걸리를 시켜 마시고 있는데, 정외과 학생인가, 한 친구가 다가가더니, 전두환을 막 비판하며 들어보라고 하더군요. 전재용은 가만히 있고 그렇다고 경호원들이 저지하지도 않았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드나들면 외상도 많았을 텐데요. 외상하고 감옥 가고 그러다 보면 떼인 돈도 많았겠어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때는 개인보다 동아리별로 장부를 달아놓고 외상을 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선배들이 와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외상장부가 있긴 했지만 1986년인가, 큰 장마 때문에 온 집에 물이 들어 외상장부가 다 떠내려 가 버렸어요. 요즘 가끔 그 학생들과 그때의 외상값이라며 얼마 주고 가기도 하는데, 나는 모르지요.”

한민호 군이 옆에서 거들었다.

“1982년에 평문회도 웨드라에 외상이 꽤 있었지요. 그런데 당시 평문 회장이던 광역진이 피를 내어 1일 찻집을 열어 외상을 모두 해결했어요. 81, 82학번 여학생들을 미인계로 써서……”



웨드라 주인장 조현숙(왼쪽) 씨와 식당 내부 모습

조현숙 씨는 휘드라에 진을 치고 있던 연세대 동아리와 학생들 이름을 그 시절의 영상을 되돌아보듯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학번과 소속 동아리, 평문회, 인간문제연구회, 목학회, 탈반, 현대문화연구회, 쿠사 등의 회장 이름, 심지어는 어느 학생이 NL이고 어느 패거리가 PD인가를 딱 집어 이야기하는데, 정작 운동권이었던 조호걸 등은 자기들의 기억을 자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 학생들과 시대를 함께 한 주인공

“요즘도 그 학생들 가끔 옵니까? 특히 국회의원이나 출세한 사람들”

“몇몇씩 가끔 옵니다. 매년 체육대회 끝나면 떼거리로 몰려 와 시끌벅적하지요. 송영길, 이상호, 이성현 의원도 가끔 오고요. 연대 출신은 아니지만 김영춘, 이인영, 임종석,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온 적이 있어요. 이광재 씨도 한번인가 왔는데 국회의원인 줄 몰랐어요. 술값이 2만 6천원 나왔는데, 후배들 오면 술 사주라고 10만원을 주더군요. 그러나 받지 않았어요. 요즘 학생들이 이런데 와서 술 먹나요?”

그 엄혹하던 1980년대 운동권 술집이라니, 고초인들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 집에 오던 학생 중 감옥에 간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이지요. 재판 때마다 만사 제쳐놓고 남편과 함께 방청하러 다녔지요. 죄수복에 수갑 찬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또 그때 수배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술집을 닫을 때면 항상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밤에 몰래 들어와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잠도 자고 가라고.”

“정보와 형사들이 감시하거나, 혹 경찰이나 정보기관에 잡혀간 일도 있어요?”

“밖에서 가끔 두 세 명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기도 하

고, 들어와 술을 시켜 먹기도 했지요. 학생들도 형사인 걸 알지만 그럴수록 더 크게 노래하고 그랬어요. 1983년인가 연대 민민투 짱이 수배되었는데 1계급 특진에 300만원 현상이 걸렸어요. 이 친구가 전화로 추석인사를 걸어 왔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11시쯤 남자 두 명이 찾아오더니, 차 뒷좌석 가운데에 앉히고는 눈을 가리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 치안본부예요. 그리고 어느 방에 데려가서는 탁자 앞에 앉히고 민민투 짱 있는 곳을 알려 달래요. 모른다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 집에 자주 오는 학생들 이름과 연락처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서 술 팔면서 이름, 주소 적고 전화번호 확인하고 그러느냐 하니까 말을 못하네요. 그래도 자꾸 몇 명이라도 대달라기에 이규희, 신준영 등 감옥에 있는 학생들 이름만 불러줬지요. 그날 오후 5시쯤 나왔는데, 나는 그때까지 우리 집 전화가 도청되는 것을 몰랐어요.”

불의는 평범한 사람까지도 투사로 만든다. 생계를 위해 연 구멍가게 술집 아줌마는 이렇게 스스로 ‘운동권’이 되어가고 있었다.

“고생이 많으셨네요.”

“천만에요. 저는 연세대 학생들에게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생각 반듯하고 똑똑한 언니, 오빠들을 줄곧 옆에서 보아온 제 외동딸이 그 영향을 받아 너무 잘 자랐어요. 그리고 재산도 좀 모았어요. 그게 모두 학생들이 술 팔아준 덕이지요.”

휘드라 아줌마 조현숙 씨와 흘러간 연세대 학생들과의 이야기꽃은 끝이 없었다. 중간에 중앙노동위 상임위원 이수원(79학번) 군이 합석하였고, 휘드라에서 제일 말 잘 안 듣던 김치걸 변호사도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차에 끌려나와 밤늦게까지 함께 했다. *SM*

글 김학민 | 민주화운동으로 수 차례 투옥된 바 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음식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blog.naver.com/hakmin8)